

설 홈드림 가정예배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족의 명절인 설날, 사랑하는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 시간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 송	384장	다같이
1. 나의갈길다가도록예수 인도하시니내 주 안에 있는 공흠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 나의갈길다가도록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축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같하나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 나의갈길다가도록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	가족 중
----	------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지켜 주셔서 이 시간 설 명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동안 환경의 위기 속에서 부모·형제·자매, 그리고 자녀를 온전하게 돌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지 못하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져 무척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재난을 겪으면서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셨고, 날마다 부어주신 소소한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코로나의 재난이 주는 교훈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가족 구성원들이 더욱 사랑하고 격려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 송	신은정집사 가정
성경봉독	시편 138편 6절~8절 자녀들이

- 6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 7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 8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설 교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가정	담임목사님
-----	----------------	-------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 감염증의 위협은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침몰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물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붙잡음으로써 오늘의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 우리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6절).
 좀처럼 소멸되지 않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연약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당 할 때 외면하거나 모른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편안할 때 보다 고난당 할 때 우리를 더 돌보시기 위해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어찌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2.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7절).
 표준새번역성경은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를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라고 번역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막아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건져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자녀세대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청장년은 취업과 사업의 고민으로 마음이 편치 않으며, 어르신들은 건강의 위협 속에서 집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절망의 시간은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다시 굳게 잡아야 하는 시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것으로 보상해주시는 분이십니다(8절).
 본문 8절의 '보상하다'는 '완전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온갖 죄로 물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완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을 무시하고 멀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보상만이 아니라 부족한 것은 어떤 것이든 풍성히 채워 완전하게 하는 분이시기에 손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 가족을 굽어 살피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완전한 것으로 보상해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는 설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합심기도	찬 송	559장	다같이
------	-----	------	-----

-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님의 기도	다같이
--------	-----